

스티브 잡스가 발표했던
애플 사옥 조감도

디자인팀

잡스는 “건물 외벽은 곡선 통유리로 마감하고 건물 중앙부엔 녹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바깥에서 보면 마치 우주선이 착륙해 있는 듯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환경 건물로 만들기 위해 주차장은 지하로 넣고 전체의 80% 공간을 녹지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녹지엔 살구나무를 주로 심을 계획이다. 잡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건축가를 이미 고용했다”며 “전 세계 건축학도가 구경하러 몰려올 정도로 최고의 사무실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아예 천연가스로 자가발전을 하되 기존 전력선은 예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중앙일보(2011.6.10)에서 발췌

















